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장한 참 & 온전한 복음! (2)

- 읽을 말씀 롬 1:1-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왜 칭의 교리에 대해 모순처럼 보이는 말들을 통해 복음을 전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상 반론을 통해 바울이 전하고자 한 참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5) 루터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3-5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전하고, 전할 때 오해를 받으면 6장에 나오는 설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3-5장에 나오는 내용만 전하고 루터의 오직 믿음 혹은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에 속아 6-8장에 나오는 진리를 액면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빌미로 루터식 즉 구원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절대다수가 착각하듯이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칭의의 수단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직 믿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둘째로,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율법주의의 위협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만 되풀이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복음을 바울이 6-8장에서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설명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분이 아닌 전체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할 때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산출하는 참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음은 ...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롬 1:1-5)"에서 보듯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은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첫 머리뿐 아니라 마지막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

파함은 ...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16:25-27)" 로 나타냅니다. 로마서 전체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인클루시오 구조로서, 믿음을 강조하되 행함을 산출하는 참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2장에서 바울은 회개를 강조하며 행위심판에 대해서 썼습니다(롬 2:6-11). 칭의 교리는 행위심판의 진리 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행위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롬 2:13). 그러므로 복음이 행함을 산출하지 못하는 사변적인 믿음을 주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3장에서 율법과 관련하여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31절)"**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파기하느냐"는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로 "폐하다, 무효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반대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해지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웁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온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마 5:17).

물론 옛 언약 하에서라는 시대적 의미에서는 모세의 율법이 폐해졌으므로 구약시대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의 의식법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케 하셨고, 도덕법도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냄으로써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고전 9:21)",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약 1:25, 2:12)"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

롬 14:7-9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은 바울이 강조한 믿음이 구원파적인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리라(마 7:21).”와 비교해 보아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든 오늘날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복음(산데만주의)은 진짜 복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통의 탈을 쓴 이단이고 성경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미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배격하고, 회개하라 외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들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또, 순종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모두를 강조해야 바울이 전한 참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입니다.

또한, “성화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인데, 칭의를 설명한 3-5장뿐 아니라 성화를 설명한 6-8장도 복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성결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을 주장합니다. 성화도 복음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칭의, 성화, 영화가 다 구원론이라는 것과 로마서 3-8장이 이 세 가지를 다룬 것이라는 것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어떤 교단의 교리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도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입니다(막 1:15, 행 20:21, 히 6:1). 그런데 회개는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들이고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할 뿐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6-8장에서 강조한 순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버림받을 위험이 제기됩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복음진리의 일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빌 1:27)”**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롬2:16)”** 라는 구절은 복음에 행위심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위심판은 복음의 기초(터)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도 마지막 날 행위심판을 받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만 전하면 심판 날 확실히 의롭다 함을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 날 더 많은 이들에게 의롭다 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순종의 중요성과 버림받을 위험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불신자인 벨렉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복음)” 를 전할 때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을 강론했습니다(행 24:24-25). 즉 순종의 중요성과 버림받을 위험에 대해 말했습니다(의와 절제가 없으면 심판 날 멸망한다는 말이므로 그 진리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전해야 참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롬 6:1)"** 는 복음을 믿고 난 후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느냐는 질문이고, 답은 부정적입니다. 바울은 순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순종치 않고 죄 가운데 살면 버림받는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6-8장도 복음에 대해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이 6-8장은 성화에 대한 설명인 동시에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3-5장, 6-8장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율법주의, 후자는 무율법주의를 상대로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한 것이므로, 이 둘을 합해야 참 복음이고 온전한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 나눔과 적용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은혜와 믿음만 강조하지 않고 순종의 중요성과 버림받을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가장 변화된 것은 무엇이며, 은혜와 믿음만을 강조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개선되는지 나누어 봅시다.